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제1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제1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제6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2,3 응송 / 봉독서 79-80
-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승천 축일 입당송 / 오순절 예식서 79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A 216
-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승천 축일 시기송 / 오순절 예식서 80
- 사도경 : 사도행전 20,16-18, 28-36 / 260, 봉독서 84
- 복음경 : 요한 17,1-13 / 261, B 29
- 승천 축일 영성체송 / 오순절 예식서 81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승천 축일 찬양송’ / 오순절 예식서 77

성 보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우울증, 겸손 그리고 고백사제”

겸손한 사람이란 성격이 무른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크고 작은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고백사제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안타까워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화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흔히 열등감에 젖은 사람도 외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거나 충고를 해도 자신의 병든 이기심을 드러내고 동요하며 그나마 겉으로 보여주던 작은 평정심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주의 깊게 들읍시다. 이 거룩한 몸과 피는 거룩한 이들에게 합당하나이다”

우리는 성찬예배에서 예배 집전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또한 신자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주의 깊게 들읍시다. 이 거룩한 몸과 피는 거룩한 이들에게 합당하나이다.”라는 기도 문구를 들읍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구는 하늘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성혈을 영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예배 집전자가 “와서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거룩한 이들에게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혹시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있다고 믿는데, 천국에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에는 죄인들만 있는데 다만 이 죄인들은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또한 지옥에도 죄인만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듯 “이 거룩한 몸과 피는 거룩한 이들에게 합당하나이다.”라는 기도 문구에서 거룩한 이들이란 덕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의 높은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욕망에 대해서 투쟁하고, 자신의 타락에 대해 회개하고, 고백성사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을 홀로 거룩하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의 일치와 연합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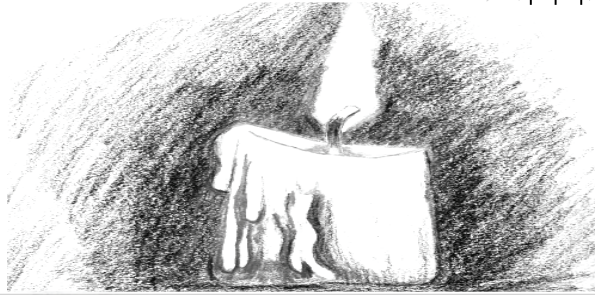
거룩한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 또한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속한 신자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한 예로 “에페소 성도들에게”(에페소 1,1)라고 부르듯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을 일컬어 ‘성도’, 즉 ‘거룩한 무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를 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체성혈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성체성혈 성사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

☞ 3면으로 계속

인내는...

마음이 아프지만, 패배하거나 짓밟히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투덜대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불평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반(反)사회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똑바로 서있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도리어 주는 것이며...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하는 것이다.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을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신자들을 떨어
 져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
 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애인 것입니다. “너희가 악
 해서 너희와 하느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가려 너
 희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이사
 야 5,2)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듯

이, 우리의 악과 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거룩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는 언제나 주님께 합당치 못한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
 대한 성사인 신성한 감사의 성사에 주의
 깊게 또 겸손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원
 합시다.

† 한국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소 식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봄 바자회

지난 5월 14일 주일 성찬예배 후 2017년 봄 바자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 게임 및 먹거리가 준비되었고, 북 카페에선 책 세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음식 평가를 높이 하셨습니다.

청장년들의 활기찬 협조와 음식 제공으로 부인회에서 순조롭게 바자회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해합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봄 야유회

지난 5월 14일 주일 성찬예배 후 미포조선체육공원으로 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약 40여 명의 내외국인 신자들이 참여하여 재밌는 게임,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유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신 여성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준비해주시고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 6월 3일(토) ▷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추도식

(우리 교회의 모든 선조들을 기념하는 추도식에
폴리바를 준비하여 모두 참여합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